

임원, 이사, 중앙 합동연석회의

회의록



제19대 총연 제1차 임원, 이사, 중앙 합동연석회의 회의록

일 시- 2001년 9월 29일 3:00-6:30 pm

장 소- Hyatt Hotel, Louisville, KY

기록자- 음호영 (간사)

참석자- 이오영 회장, 이준성 이사장 외 77명(별지 명단 참조)

1. 박현우 사무총장의 성원 보고와 이오영 총회장 개회 선언 이후,
제19차 정기 총회에서 신임 회장에게 이사장 추천 인준건과 회칙 개정 위원회에서 회부한 회칙 개정 건에 대해 18대 회칙 개정 위원과 5명의 축조심의 위원을 위촉하여, 11인 축조 심의위원을 구성, 회칙 개정안을 심의 검토하여 통과하면 효력을 발생하도록 결정한 사항에 대해 진위 여부를 물은 바, 결정 내용이 사실임을 만장일치로 재확인한 후에 -
2. 이준성 이사장을 소개하고, 사회를 보도록 의뢰하였다.
3. 이준성 이사장은 19대 이사장으로 추대해 주심에 감사하고, 최선을 다해 이오영 회장과 집행부를 도와 일할 것이라 인사를 한 후, 합동 회의를 시작하였다.
4. 박현우 사무총장의 사업 계획 및 예산안 보고가 있었으며, 토의 끝에 원안대로 받아드리자는 이승열 회장의 동의제와 김병직 회장의 재청으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 사업 계획 및 예산안은 유인물 참조.
5. 김기홍 회칙 개정 축조 심의 위원장의 개정 회칙의 심의에 대한 경과 보고와 함께, 폭넓은 의견 수렴이 있었다. 김기홍 심의 위원장은 개정 회칙 중 중요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가) 부회장단 과 부 이사장단의 수를 각각 10명에서 13명으로 증가시키고
나) 중앙상임위원회를 인구비례에 의한 지역 한인회와 연합 한인회 현직 회장 중에서 16-21명을 구성하여, 지역 현직 회장의 참여의 길을 열고, 회장단과 이사장단이 함께 합동 회의에 참석하여 상임이사회의 기능을 수행하고, 중요 사업과 회장이 의뢰한 안에 대한 심의 의결할 수 있도록 했으며,
다) 회관 건립 위원회 기금을 “위원장이 소액 인출 허용” 조항을 “회관 구입 기금 이외에 원칙적으로 인출을 금지” 하기로 개정하였으며, 기타 개정 조항은 배부된 개정 회칙을 참고하기로 당부하면서 보다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해 질문과 제의를 받았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6. Q. 의견 수렴 과정에서 회칙에 밀줄 친 부분은?
- 개정된 내용이며, 용어 변경도 포함되어 있다.
Q. 회관 관리 위원장은 누가 임명합니까?
- 회장이 추천으로 상임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Q. 회관 건립 위원장의 임기는 몇 년이냐?
- 상설 기구로 되어 있어 4년이다. 그러나 문제는 해당자가 사임할 경우 교체되는 것은 당연하다.
* 강봉희 회장의 동의로

- 회칙 제46조(재정) 2항 말미 "5,000 명 이하 지역"을 "10,000 명 미만 지역"으로 정정하고

- 회관건립 운영세칙 제4조(구성) ---위원 4명으로 구성한다." ---위원 4명과 영구위원으로 구성한다."로 수정하고,

- 동 운영세칙 제11조(기금관리) "---기금 관리는 위원장 명의"로 ---기금 관리는 현직 회장을 비롯하여 위원 4-5명의 공동구좌 명의로 건립기금 계정을 개설하도록 개정하는 조건으로 회칙 개정 심의 위원회에서 심의 통과 한 개정 회칙을 받아들일도록 제안하고, 신상균 회장의 재청을 받아 만장일치로 인준하였다.

7. 분과별 보고가 있었다.

가) 외교분과(오기택 위원장)

미국 정부는 물론 한국 국제 단체간의 유대를 증진하고, 재미 동포 권익 신장을 위한 분과로 생각한다. 라고 전제하며 ① Data Base 확립 ② 총연이 등불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분과에서 최선을 다할 것임.

나) 법률분과 (김경곤 위원장)

타코마 지역에서 9·11사태 구호 모금을 \$30,000 정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총연을 통해 미 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이사장을 통해 서면보고.

다) 기타 분과는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란다는 이사장의 당부로 분과별 보고를 마치고,

8. 이사장으로부터 부 이사장 소개가 있었으며,

9. 감사에 강봉희, 나광열 회장을 선임하고, 각 분과 위원장을 회장이 위촉한대로 포괄적으로 인준하거나 선임하였다.-만장일치

10. 인수 위원장이 부재중이라 18대 총연에서 인수받아야할 제반 사항은 이사장 책임 하에 "후속 대책 위원회"를 구성하여 처리하고 다음 이사회에 보고하기로 하다.

*따라서 전임회장의 인계 인수 목록과 선관위원장의 공탁금 지출 중 인수위원에서 보고된 미확인된 금액 부분의 후속 조치는 차기 이사회에 보고될 것임.

11. 주용 수석 부 이사장이 회관 건립 기금 보관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잔고 \$ 82,700.00 + 이자로 총 \$ 83,304.00 로 되어 있다는 내용과 그 외에 약정 금 과 별도 구좌에도 일부 있다. (임용금 \$13,000.00)는 내용이나 책임자로부터 정식 인계되지 않은 사안임으로 정식 인수 후에 차기 회의에서 보고기로 함.

12. 박찬일 회장으로 부터 질문 "한글 교육 프로그램에 자금이 많이 들텐데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가?"

박현우 사무총장- 총연에서 추진하는 한글 교육 사업은 컴퓨터 사이버를 이용한 것으로 비용은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되며 오히려 수입이 될 수도 있다.

13. 기타 정세권 기초실장이 발언권을 얻어 총연의 운영자금 모금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가) 골프 대회

나) 한인기업과 제휴하는 방법

다) 단체 건강보험 운영과 연계하여

라) 이익금이 나올 수 있는 행사 추진

마) 이민 100주년 기념 사업-(별도 연수) 등을 제안함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집행부와 협의하여 실행 가능한 것부터 실현하도록 하였다.

14. 총회장이 참석한 임원, 연합회장, 편집 위원장, 각 분과 위원장, 기조실장·차장, 사무총장·차장, 자문위원 모두를 소개하다.

15. 9·11 사태 모금 Deposit을 위한 총연 Escrow Account 소개하다.

16. 5개항 결의문 채택(내용 별도첨부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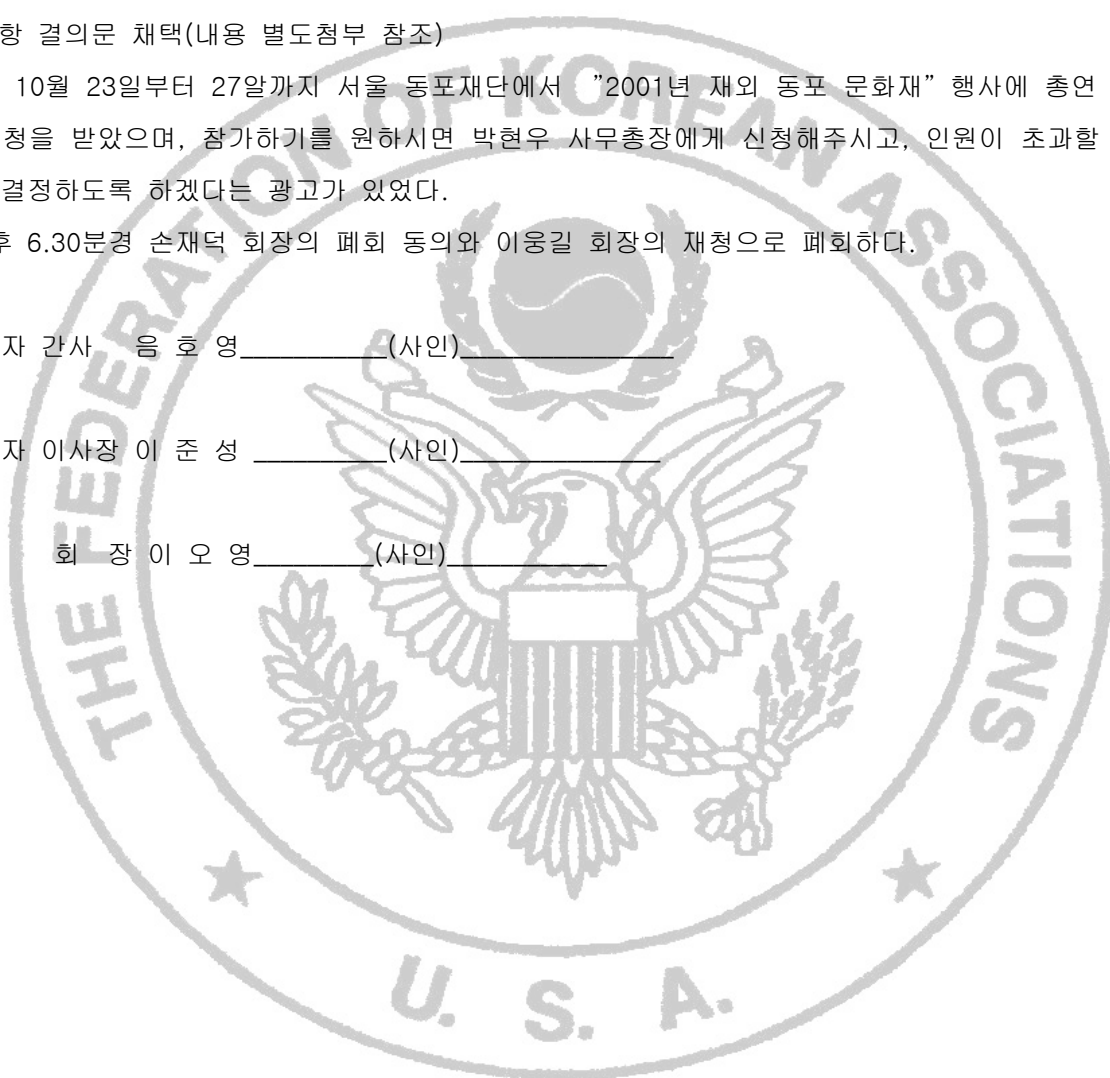
17.오는 10월 23일부터 27일까지 서울 동포재단에서 "2001년 재외 동포 문화재" 행사에 총연 간부 10명 정도 초청을 받았으며, 참가하기를 원하시면 박현우 사무총장에게 신청해주시고, 인원이 초과할 경우 사무처에서 결정하도록 하겠다는 광고가 있었다.

18. 오후 6.30분경 손재덕 회장의 폐회 동의와 이용길 회장의 재청으로 폐회하다.

위 기록자 간사 음 호 영 _____ (사인)

확인자 이사장 이 준 성 _____ (사인)

회 장 이 오 영 _____ (사인)



제19대 총연 제2차 임원, 이사, 중앙 합동연석회의 회의록

일시: 2002년 2월 23일

장소: Omni Hotel, Dallas, TX

참석자: 이오영 회장, 이준성 이사장외 80명

서면위임자: 11명

총 91명

9시30분 AM에 박현우 사무총장의 성원보고와 이오영 총 회장의 개회선언 이후

1. 국민의례

오용운 달라스 한인회장 환영사

이오영 총회장 인사말

이준성 이사장 인사말

양봉렬 휴스턴 총영사의 격려사

신필영 전 총연회장 축사

* 전 회의록 낭독 후 만자아일치로 통과됨.

2. 세미나

a. 신호범 워싱턴주 상원의원의 '주류 사회 주역으로서의 총연의 역할'

주류사회 참여를 위해서: 꿈을 갖고 꾸준히 노력하자

어려울 때 기도하라

제1,제2 외국어를 익히자

주류사회에서의 선구자 역할을 다하자

2세교육에 힘쓰자

이렇게노력함으로써 정치에 한발 다가설수 있는 꿈이 이루어 질 때 우리민족이 나아가서는 소수민족의 권익을 대변하여 신장시킬수 있다.

b. Bob Drigert (Dallas County Chairman)의 “정치참여 방법,”

정당에 참여(가입)하라

기금모금에 적극 참여하라

자원봉사자로 각 정당활동에 적극 참여하라

Network을 조직해서 그들의 의견을 제시하라

* 각자개인 소개시간을 갖다

c. 임용근 전 오레곤 상원의원의 “한반도 통일과 미주교포의 역할,”

남한은 물론 북한까지도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듯이 우리 교민 또한 조국 통일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

그러나 통일자체에 너무 조급해 하지말고 통일의 방법(길)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할 때이다.

구체적으로: 부단히 남북교류가 유지되어야 한다. 문화, 교육, Sports 등등, 중립적인 해외교민의 역할은 매우 가능성이 높으며 특별히 미주교포가 그 핵심이 될 수 있다. 강성 대국, 선국정책을 추구하는 북한과는 남한의 직접적인 대화가 가장 바람직하고 빠른 길이다.

A: 정호영: 언제 통일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는지?

Q: 예수님이 언제 이 땅에 다시올 지 모르듯이 우리는 모르나 북한이 잘 살 때에 그리고 군대의 균형이 계속 유지될 때에 통일이 가능하다고 본다

3. 12:00 점심식사(양봉렬 휴스턴 총영사)

4. 1:00 - 3:30 PM 각 분과별 토의

- a. 2002-Korean American Leadership Conference
- b.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개정
- c. 이민100주년 기념
- d. 총연, 미주 지역 한인회와 Network 구축방안
- e. 한반도 통일과 총연의 역할
- f. 재외동포 센터 건립

5. “임원, 이사 확대 본회의” 3:30 -5:30 PM

A. 총회장의 사회로 각 분과별 책임자로부터 분과별 토의결정사항을 보고하게 한후

- 1) 2명의 감사를 위촉하기로 통과함
- 2) 총회장 특보를 약간 명을 위촉하기로 통과함.(회장에게 위촉권 위임.)
- 3) 전국적인 타 조직과 공조체제 구축하여 민족의 역량을 결집할수 있는 모든 권한을 총회장에게 위임하기로 통과함

기타사항으로 재외동포센터 건립 건: 미주 총연으로서 마땅히 참여하되 거기에 대한 모금참가자의 참가금액에 상응하는 혜택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총연의 입장.(이 건은 결?이며 결정된 사항은 아님) 또한 총연이 제시할 합리적인 모금 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건의 바람

B. 각 분과별 토론 결과

1) 정치포럼 (참석자 20명)

명칭을 “The First Korean American Leadership Conference” 로 개칭하고 폭넓은 미국 주류사회에 참여하는데 모든 포커스를 맞춘다.

2) 재외동포 특례법(참석자 11명)

a)혈통주의에 입각 재외동포가 모두 평등하게 혜택 받을 수 있도록 개정건의를 원칙으로 한다

b)”애국 동포는 세계화한 한국국민이다” 라는 용어사용 여부는 초안위원회에 일임하기로 의결함

3) 이민100주년 기념사업(참석자 15명)

a) 총연에서 주도적으로 (158개 한인회) 추진한다.

b)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c) 각 한인 회에서 2003년 1월 13일 일률적으로 동시에 기념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시, 주 정부 당국으로부터 “Proclamation”이 있도록 로비

d) 2003년 1월1일 Rose Festival에 적극 참여한다.

e) 결의사항을 본국 및 기존사업회 팀에 적극 통보한다.

최종결정은 총연의 원칙을 가지고 기존100주년 사업회와 전국사업 중 사한별로 적극 협조한다.

4) Network 구축(참석자 6명)

총연과 각 한인회간의 Network을 시급히 구축하고 지역한인회의 동참을 촉구했다.

5) 한반도 통일(참석자 17명)

총연의 독자적인 통일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 검토하기 위하여 별도 통일정책연구위원을 결성하여 총연산하에 영구적인 통일연구기구를 운영한다.

C. 기타사항

* 이오영 회장보고: 총회건립기금의 인수인계관계는 18대에서 19대로 정식 인수받지 못했기 때문에 19대 총연에서 모금한 금액 \$30,000은(이동 총연명예고문 \$10,000 + 이오영 회장 \$20,000) 별도 구좌에 Escrow해 놓았다는 보고와 은행 Account에 19대회장 이름이 추가되어 회칙에 의거 실질적인 관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넘어올 때까지 별도 필라델피아 구좌에 보관하고 있다는 보고와 이의 타당성을 묻고 여부를 물어 타당하다는 만장일치의 박수로 동의를 받았다.

* 한진구 재무보고: 비영리 단체의 등록여부를 확인한 결과 기존 비영리 법인체는 전임자로부터 법인체 등록을 인수받지도 못했기 때문에, 본인이 확인한 결과 전직들의 관리 부진으로 그 기능이 사멸되어 재등록이 필요하여, 편의상 2001년 12월에 North Carolina 주에 “The Federation of Korean Associations,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미주 한인회 총연합회)라는 이름으로 비영리 법인체로 재등록하였고, IRS 501C(3)도 신청을 준비하여 Donor들의 Tax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재정비하고 있음을 보고하고, 이의 승인을 문자만장일치의 박수로 승인하는 결정을 하다.

D. 다음과 같이 6개 사항을 결의하다.

<결의사항>

1.미 주류 사회진입을 위하여

우리는 미주 한인 동포들의 정치 역량을 결집하고, 효과적인 미 주류 사회 진출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하여 미주 한인 지도자 회의(Korean American Leadership Conference)를 연차적으로 개최하기로 하고, 제1차 회의를 2002년 5월 17-18일 워싱턴 DC에서 갖기로 한다.

2. 재외동포법 개정에 관하여

우리는 법정 기일 내에 (2003년 말까지) 혈통주의에 입각해서 재외 한인 동포 모두에게 평등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도록 현행법을 개정할 것을 고국 정부 및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

3. 이민 100주년 기념사업에 관하여

우리는 이민 100주년 기념 행사와 사업을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본 행사의 성공을 위해 지원과 후원을 아끼지 않으며, 기존의 100주년 기념 사업회와는 사안별로 협조한다.

단, 향후 이민 100년 대계의 청사진을 개발하는데 역점을 둔다.

4. 한반도 평화 통일 기여 방안에 관하여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에 기여하기 위하여 미주 총연 산하에 “통일정책 연구위원회”로 회장 임기와 관계없이 상설 기구로 신설한다.

5. Network 구축에 관하여

우리는 총연 산하 50개 주 180여 지역 한인회와 Network를 구축하여, 200만 미주 동포들의 역량을 결집한다.

6. 재외동포센터 건립에 관하여

우리는 재외 동포의 편의 제공과 정체성 확립, 그리고 차세대 교육의 전당을 위하여 재외동포 센터 건립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동포센터 건립 기금 모금에 최선을 다해 협조한다.

E. 폐회 (5:25 PM)의 동의를 있어 제청을 받아 폐회 선언하다.

위기록자 간사 음호영 _____ (사인) _____

확인자 이사장 이준성 _____ (사인) _____

회장 이오영 _____ (사인) _____



제4차 뉴욕 임원, 이사, 중앙 합동회의에서 신호범 의원이 연설하는 모습

제19대 총연 제3차 임원, 이사, 중앙 합동연석회의 회의록

- * 일 시: 2002년 5월 18일 오후 6시-8시.
- * 장 소: 워싱턴 DC, 설악가든 식당
- * 참석인원: 72명 참석, 15명 서면 위임. - 총 87명.

1. 회의 개최 이전 최제창(95세) 워싱턴 초대 회장이 구한말 공사가 사용했다는 사적 건물은 한민족 손에 넘어올 수 있도록 정부의 협조 요청을 한다고 제의하다.
2. 박현우 사무총장의 사회로 성원이 선포되고 제3차 임원, 이사 확대 회의가 개최되다.
3. 이오영 총회장의 이번 2002 한인 지도자 대회 행사에 많은 지도자 분들이 참석하여 진지하게 임해준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간단한 인사와 이오영 초대 회장의 오늘 행사의 성공을 치하하고, 총연을 중심으로 일부 부정적인 시각을 배제하고, 긍정적인 측면에서 합심할 때 발전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의 축사를 하다.
4. 음호영 감사 대신 장익군 차세대 분과위원장의 제2차 달라스 임원, 이사 확대 합동회의 시 작성된 전 회의록 낭독이 있었으며, 회의록을 수정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다.
5. 박현우 사무총장의 제의로 미 50개 주 각 지역 전, 현직 한인회장과 직능 단체장 등 150여명이 참석한 이번 2002 Korean American Leadership Conference'행사는 성공적인 행사로 결론을 내리고, 앞으로 보다 발전시켜 연례 행사로 추진하도록 하다. 아울러 지도자대회에서 결의한 7개항의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추인하여, 발표하기로 결정하다. (다음참조)

결 의 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는 2002년 5월 17일-18일까지 워싱턴 DC에서 미주요 분야의 실무 급의 중요 인사와 미주 50개 주 150여명의 한인 주요 지도자들이 자리를 같이 한 2002 Korean American Leadership Conference"에서 토의된 주요 내용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1) 우리는 미주 한인 이민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지난 100년 간의 이민 선조들의 열이 서려온 미국 사회에서 우리들의 현 주소를 재확인하고, 향후 100년을 새롭게 설계하는 성숙된 문화 민족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하여 우리 고유의 전통 문화를 계승, 발전시켜 이민 문화를 창출한다.

2) 우리는 지역 한인회는 물론 한인 단체들 간의 연대를 강화하고,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를 구심체로 Net-work를 구축하여 범 지역적, 동포적 차원의 민족의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민족 집단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스스로 참여하고 협조한다.

3) 우리는 우리끼리의 문화 공간에서 탈피하여 주류 사회의 문화와 공존한다는 인식의 전환으로 폭넓게 주류 사회에 적극 참여한다.

4) 우리는 신, 구세대가 평행선상의 목표점인 주류 사회 주역으로 지향하는 활기 넘치는 동포 사회 건설과 권익옹호에 최선을 다한다.

5) 우리는 본 2002 한인 지도자 대회와 주류 사회 진입을 위한 여건 조성에 크게 기여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를 연례화 하여 발전 시켜 나가기로 한다.

6) 모국 정부와 국회는 재외 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의 폐지가 아닌 개정에 보다 적극적인 성의를 보여주기 바라며, 민족의 잠재력을 개발하여 자산화 할 수 있는 정책 추진에 보다 선구자적인 결단을 촉구한다.

7) 우리는 600만 재외 동포의 요람이 될 동포센터 건립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본 사업 추진에 적극 동참하기로 결의한다.

6. 서영석 이민 100주년 기념 특별 위원장이 제의한 ‘사업계획’ 6개항을 심의 통과시키다.

1) 2003년 1월 13일 - 전국지역에 이민100주년 기념일로 선포, 각 한인회가 소속된 주정부에 건의

2) 기념 행사 및 홍보물 제작 & 배포. - 서영석 위원장이 주관하여 편찬

3) D.C 의 초대공관 건물 매입 추진 - 모국 재외동포 재단에 자금지원 요청하다,

워싱턴 100주년 사업회와 협조 하기로 함

4) Rose Parade 참가 후원 - LA의 독립기구에서 미주 총연과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함

5) 미주 한인회 100년사 (총연사 포함) 편찬 - 별도 편찬 위원장을 임보현 총연 홍보 위원장

(동아일보 사장) 위촉, 의뢰하기로 하여 사업 추진키로 함

6) 한국 민속촌 건립 후원 - 예산 확보에 따라 추후 계획

7) 음악 순회 공연, 이민 세미나, 사진 전시회 - 예산 확보에 따라 추후 계획

7. 새로이 회장에 취임한 지역 한인회, 윤승남 뉴올리언즈 회장을 비롯 각자가 총연 발전을 위한 발표 기회를 갖은 후,

8. 김기홍 회장의 폐회 동의와 장익군 회장의 재청으로 폐회하다.

제19대 총연 제4차 임원, 이사, 중앙 합동 (상임 이사 기능 수행) 연석회의 회의록

○ 일시 및 장소 :

- 일시: 2002년 9월 27-29일
- 장소: 뉴욕 한인회관 / 숙소: 스탠포드 호텔

○ 참석자 :

- 중앙 합동회의 (상임 이사회 기능) : 재적 40명, 출석 36명 (서면 위임자 17명 포함.)
- 일반 이사회 : 재적 64 명, 출석 55 명(서면 위임자 21명 포함)
- 임원 : 재적 22명, 출석 7명 (서면 위임자 7명 포함)

○ 기록자 : 국승구

1. 이오영 회장은 회의개최에 앞서 상임이사회는 중앙합동회의(중앙상임위원, 회장단, 이사장단)에서 그 기능을 수행(회칙 제10조 3항/28조2항)하게 되어 있음을 설명하고, 재적 40명중 출석 36명(출석 및 서면위임 포함)으로 중앙 합동 회의가 성원 되었음을 알리고, 일반이사회 재적64명중 출석 55명(참석 및 서면위임)으로 역시 성원 되었음을 보고 하면서 오늘 임원의 자격으로 7명이 참석 했음도 아울러 보고했다. 서면 위임자의 서류 열람을 원하는 분은 열람하도록 제시, 참석한 고문들의 확인 사인을 받았다. 또한 이오영 회장은 오늘회의를 상임이사회와 일반 이사회를 나누어서 할 것인가, 아니면 관례대로 연석회의로 할 것인가를 토의한 결과 관례대로 연석회의로 개최하여 회의 결과에 승복하기로 만장일치로 의결함에 따라, 상임위원회, 이사, 임원 연석회의를 하기로 하다.

2. 이오영 회장은, 회의 진행권을 이준성 이사장에게 정식으로 인계한 후.

3. 이준성 이사장의 사회로 중앙상임위원회, 이사임원 연석회의 개최를 선포.

4. 박현일 회장이 제3차 회의 시 작성된 전 회의록낭독이 있었으며, 회의록이 수정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5. 박현우 사무총장이 전반기 주요 업무에 대하여 발표하고, 3차 회의 이후의 활동보고는 이오영 회장이 부연설명 하였다. 이중 소헌 뉴저지 회장의 한국 정부 보조금에 대한 질문이 있었으나, 회의 안건 중에 있으므로 나중에 자세한 설명을 하기로 양해를 구했다.

6. 서영석 회장의 이민100주년 기념사업 보고를 통해 안내책자 발행, 총연사 발행, 지역행사 후원 등 7가

지 주요사업을 언급하고, LA를 포함한 많은 지역이 여러 가지 행사와 세미나, 이벤트 등으로 많은 활성화가 되어있는데 몇몇 지역은 활성화가 안되어있으니 관심을 갖고 추진해 달라고 당부 했다

7. 또한 각 주와 시에서 ‘한인 이민100주년의 해’임을 발표하도록 각 지역 한인회에서 노력해달라는 당부를 했다. 그리고 한인회 100년사와 총연사는 총연 홍보 위원장이신 동아일보 사장 임보현 회장을 통하여 만들기로 결정하고, LA의 로즈 퍼레이드는 이오영 회장을 명예회장으로 총연에서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고 보고하다.

8. 박현우 사무총장이 지난 7월 9일 롯데 호텔에서, 열린 2002 한인회장대회의 결과를 보고하고 거기서 채택된 결의문을 낭독하였다. 또한 김호원 세계 한민족 대표자 협의회 미주총 운영위원장은 지난 7월 9일 롯데 호텔에서 동 협의회 운영위원회가 열렸음을 보고하고, 이번에 열리게 될 제7차 한민족 대표자 회의는 내년 5월 16일부터 하와이 에서 개최 하기로 했음을 보고 하였다.

9. 박현우 사무총장의 보고로 정부보조금 신청은 당초 미화 30만 불을 한국 정부에 신청, 한국 국회의 추경 예산안 심의 시 계수 조정을 거쳐 1억 원을 받기로 예산이 책정되었으나 비영리단체 미등록을 이유로, 주미 대사관 측에서 지급을 미루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10. 이에 신필영 고문이 “구체적인 방해요인에 대한 설명”을 요구함에 따라, 박현우 사무총장이 미주 한인 신문인협회장 및 미주 총연 회원이며 자칭 자문위원이라 칭하는 이 규철 회장이 기고한 선데이 토픽 주간지 기사 ‘미주 총연은 불법단체’ 라는 등의 신문내용을 낭독했으며, 이승렬 회장이 이 규철씨를 회칙에 따라 상벌위원회에 회부하자고 의견을 개진함에 따라 기타 토의 안건시간에 다루기로 함.

11. 손재덕 회칙개정 심의 소 위원회 간사가 회칙개정에 관한 사항에서 회칙개정을 위한 당시 회의의 회의록을 낭독하고 당시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본 회칙은 합법적으로 개정되었음을 강조함.

12. 이석희 동남부 연합회장의 “회칙개정의 법적 근거”에 대한 질문에 김기홍 위원장이 회칙개정위원회의 법적 근거 회칙 제14조를 인용, 설명하면서 몇몇 임원 및 회원이 회장에게 보낸 불만의 서한 내용이 전반기 결산보고, 회칙개정, 회관건립에 관한 내용이 회칙에 관련이 있다는 전제하에 결산 보고는 정기 총회에서 1회 보고하는 것이 회칙의 기본 정신이며, 회칙 개정의 불법 운운은 이 자리에 그 당시 총회에 참석했던 회장님들이 다수 있는 고로, 18대-19대 회장 이,취임식 때 총회에서 신임 이오영 회장에게 전권 위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의 사실 여부의 질문을 하여, 사회자가 회중에 묻자, 위임된 사실임을 만장일치로 재확인 하다.

13. 이석희 회장은 부연 설명에서 회의에서 의결된 내용이 회의 밖에서 떠도는 유언비어에 다시 거론되어야

한다는 점이 불만이라며, 총회에서 위임되어 개정된 회칙에 대해 이 자리에서 다시 거론될 가치가 없다는 것이 본인의 생각이라고 의견 개진함에 따라 사회자가 장내에 의견을 물어 재론하지 않기로 가결하다. (만장일치)

14 김기홍 회칙 개정 위원장은 계속해서 회관건립 위원회는 현재 회관건립기구가 총연 산하 기구로 회칙에 의거 운영되는 기구임을 분명히 하고, 구 회칙 가운데 소액인출 허가 내용을 원천 봉쇄하는 내용으로 개정 되었음을 강조하고, 회관 건립기금은 현직 회장의 이름이 들어간 5인의 Authorized Signer로 하되, 세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인출권자 및 5명의 Authorized Signer가 넘을 경우 먼저 선임된 분 순으로 제외되는 제도적 보강이 필요함을 제의하다.

14. 한진구 재무이사의 재무보고 직전에, 비영리 단체 IRS 등록 과정을 설명하고 2002년 9월 17일로 비영리 단체 등록이 완성 되었다고 보고하면서,

15. 재무보고를 마치고, 질문을 받는 자리에서 “총연 각 한인회에서 등록된 IRS 넘버를 공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문이 있자 전문가와 의견을 수렴 하에 차후 알려주겠다고 답변하다.



한진구 이사가 재무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16. 강봉희 감사는 재무와 행정 감사 결과를 보고 하고, 영수증과 지출 항목이 일치 하고 문서 수발 및 각종 서류가 보관이 잘 되어 있었으며, 전산실이 상당한 수준에 있었다고 발표했다.

17. 재무보고 및 감사보고에 대해 원안대로 동의 재청으로 통과 되었다. 또한 사무실의 총연의 위상에 맞도록 적당한 크기이며, 사무실이 체계화 되어 있음을 발견했다고 보고하고, 회원들이 총연 사무실을 방문할 것을 권유하였다

18. 이오영 회장은 모국 수재민들과 아픔을 같이 하고, 이들에게 삶의 희망과 동포의 따뜻한 온정을 전하기 위하여 총연 사무처에 총 대책 본부가 설치 되었고, 지역 한인회에 지역 대책본부를 설치 하도록 협조 공문을 발송 했음을 상기 시키고, 앞으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즉석에서 수재의연금을 모금한 결과 \$5,453.00가 모금되어 조원일 뉴욕 총영사에게 전달하다.

10분간의 휴식을 거친 후 계속된 기타토의 안건에서는

19. 이오영 회장은 속회 전에 몇분의 '해외 한민족 대표자 회의와 세계 한인회장회의 차이점'등에 관한 질문에 대해 개괄적인 설명을 하고, 회의 사회권을 이준성 이사장에게 넘기다.

이준성 이사장의 사회로 속개된 연석 회의에서, 최광수 회관건립위원장이 보내온 회관건립 기금 서면 보고서를 낭독한 후,

20. 회관 건립 및 건립 기금에 관한 제안 설명에서 건립기금의 단일화에 관한 사항과 인출권자의 서명인원(인출 시)결정의 안에 대해 여러분의 의견을 개진해 줄 것을 설명하고 각자의견 개진 후에,

21. 현재 분산되어 있는 구좌의 단일화하자는 데에 의견을 모으고, 현 회장 구좌로 옮기자는 동의안과 MD에 있는 구좌로 옮기자는 개의안이 있었으나, 워싱턴(MD)에 있는 구좌로 옮기되 현 예금 구좌에 현직 회장의 이름을 추가시킬 것과 인출권자를 5명 전원으로 하는 행정 정리가 우선되어야하며, 은행 스테이트먼트는 총연회장의 사무실로 오도록 하여, 인출 현황을 회장이 분명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자는 김기홍 이사 겸 자문 위원장의 재 개의를 표결에 부친 결과 재 개의 안(제3안)을 만장 일치로 통과시켰다.

22. 앞으로 추가되는 현직회장으로 인해 Authorized Signer의 수가 5명이 넘을 경우 누구부터 이름을 제외시킬 것인가를 명확히 하자는 토의가 있었다. 첫 안건은 인출권자 Signer는 5명 전원으로 하자는 집행부 안과 5명중 3명으로 하자는 최광수 위원장의 서면 제의에 대한 안에 대해 어떤 것으로 할 것인가 하는 진지한 토의가 있었다. 토의 과정에서 '최광수 회장이 제 17대부터 위원장으로 위촉되어 제 18대에 임기가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위원장인가?' 하는 질문이 나오자, 이오영 회장은 2002년 3월에 '전임 18대 김길남 회장으로부터 최광수 회장을 회관건립 위원장으로 99년(18대)에 위촉, 선임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바 있음으로 잔류기간(2003년 6월)까지 더 봉사해 줄 것으로 위촉했으므로 회관 건립 위원장으로 인정해 주기 바란다.'고 대답하다.

23. 따라서 위 건에 대해 토의가 지속 되고, 표결에 부친 결과 은행 Authorized Signer에 현직 회장 이름을 추가하고, 회관 건립기금의 인출이 필요할 경우, "5명 전원의 사인이 있어야 인출 가능하고, 기금 관리자는 5명이 초과할 경우 (회관건립 이전까지 추가될 현직 회장의 증가로 인해) 먼저 선임된 순서대로 스스로 사임하는 형식으로 제외시키는 원칙을 세워 두는 것이 차후 또 다른 후유증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고 결정하다. 그리고 이를 회관건립 운영세칙에 삽입하기로 만장 일치로 통과.

24. 총연사 및 한인회 100년사 편찬은 미주 동아일보 발행인 임보현 회장에게 맡기기로 하고, 자료 수집에 협조하기로 하다.

25. Inact한(전반기 회의 참석에 불성실하거나 회비 미납) 임원·이사 정리 및 보완은 이오영 회장에게 전권

위임하기로 하다

26. 이승렬 회장이 경과 보고 시에 제의한 이 모 회장의 총연 위상 추락 행위에 대한 토의 제안을 기타 안건에서 처리하기로 하였으나, 김영두 상벌 분과 위원장이, 오클라호마 한인회 김만석 회장의 징계 건의안이 이미 접수 되어있음을 밝히고, 상벌 분과 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확인한 결과, 미주 한인 신문인 협회 회장과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 회원이며, 본인이 시인하는 자문위원의 신분을 가진 이 모 회장이 미주 총연의 명예에 관한 사항을 총연 자체에서 해결하려는 노력 없이 미 확인된 사안을 침소 봉대하여 악의적인 의도로 8-9회 이상 지속적으로 미 전역 주간지에 두고 게재한 행위 및 내용, '총연은 불법단체'라는 제하에 사실 확인없이 침소봉대하여 비열한 어휘를 구사하며 지나친 인신 공격 및 유언비어로 총연을 매도하여 국내, 외적으로 총연의 위상을 추락 시키고 명예를 훼손 시켜, 회원이나 국내·외 동포들이 총연에 혐오감을 갖게 하여, 총연의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를 직, 간접으로 해 온 자로 판단, 총연 자체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총연 회원에서 제명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회칙 제12조에 의거 본회 상임 이사회에 회부 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설명하고 오클라호마 김만석 회장이 제의한 내용을 이견용 상벌 분과 위원회 간사를 통하여 낭독한 후 이준성 이사장에게 제출함으로 토의가 시작 되다.

27. 본 이 모 회원의 징계안을 본 연석회의에서 정식 안건으로 다룰 것인가 여부를 토의한 결과, 본 연석회의에서 안건으로 받아들여 토의 하자고 만장일치로 결의되다.

28. 이석희 동남부 연합회장이 징계의 성격에 대해 구체적인 보충설명을 요구함에 따라, 김영두 위원장이 일부 신문 내용 제시와 함께 제명 총징계에 회부하는 것이라고 설명.

29. 본 건에 대해 회중에서 장시간 충분한 토의를 거쳐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표결 방법을 토의한 결과 비밀투표로하기로 하고, 44명이 투표에 참여 41명 찬성, 반대 3명으로 제명 동의안에 찬성함으로써 위임자 44명을 포함, 85명의 찬성으로 제명하기로 결정되었다.

30. 당일 회의장에서 다음과 같은 6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하고 이를 발표하였다.

결 의 문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는 2002년 9월 28일 임원·이사·중앙합동(상임이사) 연석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결의하였다.

1. 우리는 일부에서 제기한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이하 미주 총연) 회관 건립 기금 구좌일치, 회칙 개정, 재

정 보고를 비롯한 제반 사항에 대해, 이오영 회장이 해명한 내용을 전폭 지지하며, 제19대 집행부가 추진하는 미주 총연을 미주 한인 사회의 대표 단체로 구심화 시키려는 노력을 긍정적으로 보고 적극 지지하고 협조한다.

2. 우리는 미주 총연이 미 연방 면세 자격을 획득했으므로, 미주 총연이 건의 채택된 2002년 총연 보조금의 지급을 더 이상 지체 하지말고, 총연 발전 기금으로 지급할 것을 주미 대사관과 모국 영사국에 다시 한번 강력히 건의한다.

3. 우리는 미주 한인 이민 100주년 기념 사업과 제7차 한민족 대표자 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조하고 적극 동참한다.

4. 우리는 조국의 평화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 모국의 국민 과 재외 동포들의 공감대가 형성된 평화 정착 분위기를 더욱 확산시켜나간다.

5. 우리는 태풍 루사의 피해로 참혹한 실정에 처해 있는 모국의 수재민과 아픔을 같이 하고 이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수재의연금 모금에 적극 동참한다.

6. 우리는 재외 동포 출입국 관리 및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재외 동포법)이 헌법 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판결된 불합치 요소를 조속히 제거하여 동 법을 존속시켜줄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

2002년 9월 28일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 회 장 이 오 영
이 사 장 이 준 성
사무총장 박 현 우

31. 김기홍 회장의 폐회 동의와 김영만 회장의 재청으로 폐회하다.

기록자 : 국승구 _____ (사인)

확인자 : 이준성 _____ (사인)

이오영 _____ (사인)

제19대 총연 제5차 임원, 이사, 중앙합동 연석회의 회의록

일 시: 2003년 3월 29일 2:30 pm

장 소 : Seattle Red Lion Hotel

출석자 : 상임이사(중앙합동회의) 재직 41명/ 참석 20명, 위임 18명, 총 38명 출석

이사 재직 60명/ 참석 22 명, 위임 12 명, 총 34 명 출석

임원(사무처, 기조실, 분과위원장) 재직 22명/ 참석 9 명, 위임 4 명, 총 13 명 출석

고문, 자문위원, 정치위원 참석 21명.

총연 사무처를 통한 정식 참가자 72명 + (최 모 후보가 인위적으로 동원한 60여명이 추가되어 135 여명 참석.)

이오영 총회장은 총 72명이 참석하였으므로 성원이 되었음을 알리고, 본 회의에 앞서 본인은 지난 2년 동안 진력을 다해 일해왔으나, 때론 미비하고 시행착오도 있었음을 상기하면서, 여러 회원들의 너그러운 양해가 있으시길 바라고, 임기 중의 마지막 연석회의가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순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부탁하다.

- 박현우 사무총장의 사회로 -

1. 국승구 위원장의 제4차 회의의 회의록을 낭독(Agenda 6-10 page 참조)함으로 수정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되다.
2. 박현우 사무총장의 중요 업무 보고에서 “이라크 전쟁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및 총연의 입장”이라는 성명서 안(Agenda page 20-21 참조)을 발표하다.
3. 김호원 부회장의 “2003 세계 한인 지도자 대회에 관한 건”에서 원래의 두 대회 (제7차 세계 한민족 대표자 회의와 제4차 세계 한인회장 대회)가 각기 5월 및 7월에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되어 있으나, 거의 같은 목적과 같은 시기에 두 번을 왕래해야 하는 경비적, 시간적 부담감을 덜어보고자, 2003년에만 잠정적으로 “2003 세계 한인 지도자 대회”로 호칭하고, 본 대회를 5월 20-23일까지 서울에서 300명이라는 인원으로 ‘공동주최’로 치르기로 했음을 보고하다.
4. 이웅길 수석 부회장의 “한미 안보동맹 50주년 기념 행사에 관한 건”에서 한국과 미국은 2003년 올해로 군사동맹 50주년을 맞게 되는 데,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에서는 6월 15일 - 25일까지 열리는 다양한 행사에 Coordinator로의 역할만 수행하기로 보고하다.

5. 김창범 위원장의 “회관 건립기금에 관한 건” 보고에서, 현재 건립 기금 적립이 3군데 분산되어 서로 다른 구좌를 사용 함으로써의 불편함을 막기 위해서는 이해 당사자간의 합의가 절실한 때라고 강조했다. 이오영 총회장은 유인물에 미리 준비한 (Agenda page 11-14참조) 동의로, 김길남 회장을 회관 건립기금 구좌 단일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만장일치로 인준한 후, 3군데의 구좌를 한 곳으로 통일하고, 이오영 회장을 서명인에 포함하여 모두 5명으로 하고, 인출 시 구좌 서명인의 2/3의 찬성으로 하기로 하다.

6. 이도영 고문의 “워싱턴 구 공관 구입에 관한 건”에서, 4층 건물인 대한제국 공관은 1905년 일본 국에 단돈 \$ 5.00에 강매 당한 건물로 이제 한 세기가 지난 현재 우리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 및 미주 교포들의 자존심을 걸고 다시 되찾아야 할 때라 역설하면서, 약 3백만 불의 예산이 필요함으로 여러 회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홍보가 요청된다고 보고하다.

7. 임보현 위원장의 “한인회 100년 및 총연 25년 사 편찬에 관한 건”에서 ‘한인사 100년에 체계적이고 일목요연한 역사적 기록이 전무하여 이를 완성하고자 제19대 총연은 최선을 다 하고 있다. 특별히 도산 안창호 선생이 미주 총연의 효시로, 이로부터 각 지역 한인회의 역사를 보다 상세하고 알차게 수록하고자 기간을 연기(4월 30일 마감)하여 전 미주를 14구역으로 분리하여 정리 중이며, 현재 150개의 한인회 자료는 완료된 상태라고 보고한 후, 협조를 당부하다.

- 이오영 총연 회장 사회로 -

8. 이오영 미주 총연 회장의 본 회의 토의 안건에서 “이라크 전쟁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및 총연의 입장”이라는 성명서(Agenda page 20) 안을 채택해줄 것을 당부한 가운데 객성국 회원의 “대한민국 국회의 이라크 파병 동의안을 조속히 완성하여 통과하도록 촉구한다.”는 내용을 추가 보완하여 만장일치로 통과하다. 추후 대한민국 국회, 파병안 통과됨으로 ‘파병 결정 지지’ 내용을 포함, 발표하다.

9. “재외동포법 개정에 관한 건”은 기 추진해 온 내용대로 개정이 될 때까지 강력히 추진해 가기로 하다.

10. “각 지역 한인회 100주년 기념 사업을 위한 모국 정부의 보조금 청구 방안에 관한 건”에서 모국 정부에 2억 원을 요청하여 이미 할당 받은 상태이나, 각 지역 한인회에서는 각 지역 공관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총연을 활용하여 단일 창구화 함으로써, 총연의 위상과 일관성에 도움을 주고, 각 지역 한인회의 입장을 살리는 방향으로 협조를 바란다는 서영석 위원장의 보조 설명이 있었다.

11. 이오영 사회자는 “제20대 회장 선거를 위한 선거관리 위원장 및 후보 등록금에 관한 건”을 상정하여 후보 등록금은 회칙에 책정된 최고액인 \$ 20,000.00(이만불)로 만장일치의 찬성으로 통과시키다

12. 속개된 상임 이사회(회장단, 이사장단, 중앙상임위원)에서 상임이사 41명 중 20명이 참석하고, 18명이 위임하여 2/3 이상이 되었으므로 성원이 되다. .

13. 이오영 회장은 선거관리 위원 구성은 회장이 추천하여 상임 이사회(회장단, 이사장단, 중앙상임위원)에서 인준함이 원칙이라고 설명한 후, 보나 많은 의견을 종합해야 할 일반적인 사항은, 임원, 이사, 중앙상임 위원 연석회의에서 할 수 있으나, 회칙에 명시한 특정인의 명예에 관한 인사 등의 안건은 해당 분과나 기관에서 인준하지 않고, 인위적으로 동원된 인준권 없는(무자격자)데에 회부할 경우, 인준이 부결될 경우, 관계자는 회장을 향해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장일치로 추대해줄 경우는 그렇게도 할 수 있겠으나, 그렇지 못할 경우 원칙대로 해당 지체에서 인준을 받기로 하겠다고 전제하고,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회장이 추천하는 김기홍 회장을 선관위원장으로 만장일치로 추대해줄 수 있는지 여부를 묻자, 만장일치가 되지 않음으로, 이오영 사회자는 원칙대로 해당 상임 이사회에서 인준을 받겠다고 선언하고, 해당되는 회장단, 이사장단, 중앙상임위원들은 앞 좌석으로 자리를 정리한 후, 인원을 파악한 결과, 20명의 참석과 서면 위임 18명, 재적 41명 중 38명이 출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선포하고, 김기홍씨를 제19대 선거 관리 위원장으로 추대하여, 인준 동의를 거수로 물은 결과, 15명이 인준, 찬성 거수함으로 위임자 18명을 합하여 33명의 찬성으로 김기홍 회장이 제19대 선거관리 위원장임이 통과되었음을 선포하고, 이우홍 회장의 폐회 동의와 한원섭 회장의 재청으로 폐회하다.

14. 폐회 이후, 박현우 사무총장의 주재로 회칙에 관한 전반적인 의견 수렴이 있었으나, 일부 인사가 발언권 없이 발언대를 점령하거나, 회의장에서 고성을 질러 장내가 소란스러워지기도 하여, 저녁 식사 후 속회하기로 했으나, 호텔 사정으로 시간이 없어 앞으로 회칙 개정의 필요성이나 의견 수렴은, 정기 총회에서 하기로 양해를 구하고, 모든 행사를 마쳤다.

작성자 : 음호영 _____ (사인)

확인자 : 이준성 _____ (사인)

이오영 _____ (사인)